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주 임 신 부	정 재 준	사도요한
	보좌 신 부	정 이 춘	요셉 (청년부)
		박 경 석	미카엘 (유·초·중·고등부)
	전 교 수 녀	정 은 자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정 선 아	한나 (원장)
		정 정 아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꿀벌유치원	최 향 숙	소화대레사 (유·초등부)
	요셉어린이집	김 아 람	베로니카 수녀
	총 회 장	황 태 영	소화대레사 수녀
	연령회 총무	옥윤필	프란치스코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알 림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7월 3일)는 교황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병자영성체(봉성체)가 재개되었습니다.
- 7월호부터 매일 미사 책 판매가격이 소(소) 1,500원, 대(대)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 시 : 7월 2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 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모 임

- 성체분배자회 모임
 - 일 시 : 6월 26일(일), 11시 40분
 - 장 소 : 성체조배실
- 성모성심회 월례 모임
 - 일 시 : 7월 2일(토), 20시
 - 장 소 : 강당
- 위령봉사회 월례 모임
 - 일 시 : 7월 3일(일), 12시
 - 장 소 : 강당

● 베타니아 경로당 이용 안내

- 이용 시간 : 주 7일(월~일), 10시~18시
- 점심 식사는 무료 제공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1시 베타니아 경로당 월례 미사 봉헌합니다.

● 교구장님 영명축일 영적예물

- ① 미사 및 영성체 : 1,487회
- ② 묵주기도 : 41,376단
- ③ 성체조배 : 427회
- ④ 희 생 : 1,228회
- ⑤ 주교님을 위한 기도 : 5,263회

※ 교구장님의 영명축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신자분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맞벌이 / 이주민 / 다문화 / 다자녀)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협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7/3)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9월 시작 예정	청 소	9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6월 15일 ~ 6월 21일)

교 무 금	6,790,000원
주일헌금	4,717,150원
민족화해를 위한 단식 2차 헌금	1,806,000원
시설헌금	이선자10만원
감사헌금	강미자100만원 김용환10만원 황정후10만원 윤학점3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6/26	이영민	신종구 최상림	김덕영 김보금
7/3	손진희	조홍환 최상림	최승일 손정주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일	06:30	10:30	12:00
6/26	박승환	오광운	장인홍	최승일 최영만
7/3	박용환	이화봉	최석준	박형순 이운영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사회적 정치적 애덕

176.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부 정치인들의 실수, 부패, 무능 때문에 흔히 정치를 불쾌한 표현으로 여깁니다. 또한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고 경제로 대체하려 하거나, 하나의 이념이나 다른 이념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없이 우리 세상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올바른 정치 없이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 평화를 향한 효과적인 발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177. 여기서 저는 “정치가 경제에 종속되거나, 경제가 효율 중심의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에 종속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권력 남용, 부패, 법 경시, 비효율성은 분명히 거부되어야 하지만, “정치가 결여된 경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제는 현재 위기의 다양한 측면들을 지배하는 다른 논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폭넓은 시각으로 위기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하여 학제적인 대화를 포함한 새로운 통합적 접근을 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건전한 정치는 ……제도 개혁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좋은 관행을 촉진하며 부당한 압력과 관료적 타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으며, 경제가 국가의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도록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178. 즉각적인 이득에 초점을 맞추는 많은 협소한 형태의 정치를 마주하며 저는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합니다. “정치의 위대함은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기본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며 장기적 공동선을 배려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국가적인 계획에서”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인류 가족을 위한 공동 계획에서도 “정치 권력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정의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주교들이 가르쳤듯이 지구는 “각 세대가 빌려 쓰는 것으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79. 국제 사회는 미봉책이나 임시방편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과 대대적인 쇄신을 통하여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와 기술을 포괄하는 건강한 정치만이 이러한 과정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공동선을 지향하는 정치, 사회, 문화, 대중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인 경제는 “인간의 창의성과 진보에 대한 꿈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새로운 길로 이끄는” 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